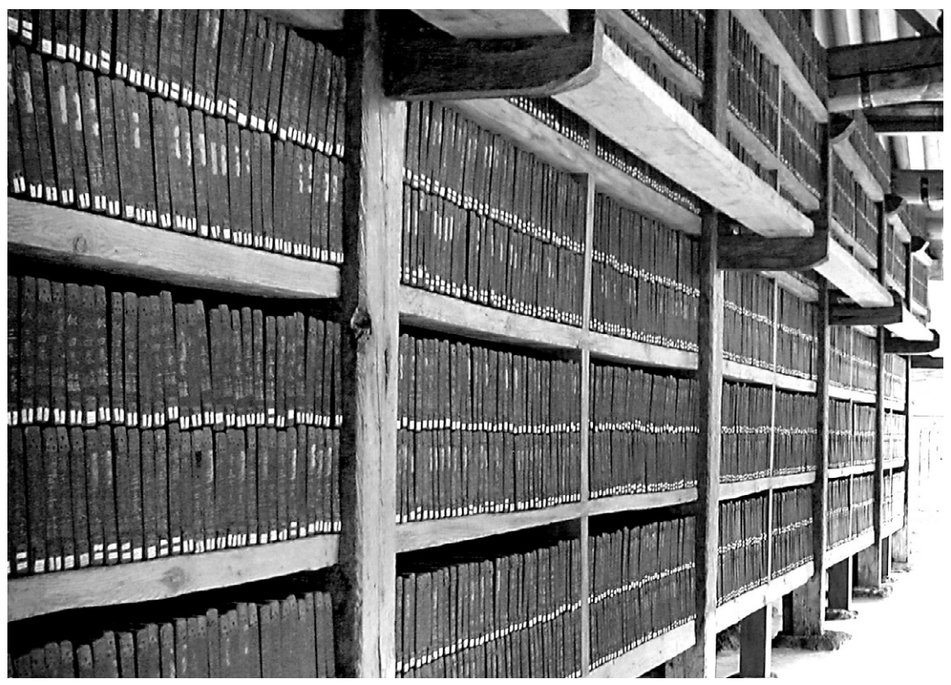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사국에 불교 전적은 어떻게 유통됐을까?

인도 · 중국 등에서 수용 목판 인쇄



고려 조정이 국민을 단결시키고 적병을 물리치기 위한 발원으로 조성한 해인사 팔만대장경

1. 불전의 유통

불교 전적은 크게 사장(四藏)으로 대표된다. 즉 붓다의 말씀(경전) 더미인 경장(經藏)과 붓다 상가의 규범 더미인 율장(律藏), 그리고 이들 경장과 율장의 해설서 더미인 논장(論藏) 및 이들 삼장의 주석서 더미인 교장(教藏)을 가리킨다.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속어인 마가다어와 쁘라끄리띠어로 설해진 불법은 구전 암송돼 혼성 범어로 기록됐다. 이들 범본 불전은 다시 북방으로 전해져 한문 불전과 티베트 불전이 됐으며 남방으로 전해져 빨리어 불전이 됐다.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신라 사국은 인도와 중국을 통해 불교 전적을 수용했다.

고구려에는 전진에서 온 순도(順道) 법사의 초전(372) 이래 주로 한역 불전이 전해졌다. 백제에는 한역 불전뿐만 아니라 성왕 때 중인도의 상가나대율사(常伽那大律寺)로 유학을 갔다(526)가 돌아온(531) 겸익(謙益)이 인도의 배달다(倍達多) 삼장 등과 함께 가져온 아비담장(阿毘曇藏)과 범어 율본(律本) 72권 등의 불전도 전해졌다. 당시 담욱(曇旭)과 혜인(惠仁)은 한문으로 범어 율본에 의거해 36권의 율소(律疏)를 지었다. 백제 불교는 겸익과 담욱과 혜인의 율학과 현광의 법화학 및 혜현의 삼론학 관련 불교

신라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한국 고인쇄문화 높은 성취 보여줘

전적들이 주로 강론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야에는 허황후의 오빠인 장유(長遊)법사의 이름만을 알 수 있을 뿐 어떠한 불전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신라에는 아도(阿道) 법사와 묵호자(黑胡子) 법사의 전래 이래 진흥왕 26년(565)에는 입학승 명관(明觀)이 진나라 사신 유사(劉思)와 함께 '석씨경론(釋氏經論)' 1,700여 권을 가져왔다. 진흥왕 37년(575)에는 당나라로 유학 갔던 신라 최초의 국비유학생 안홍(安弘)이 서역의 세 삼장과 중국 승려 두 사람과 함께 돌아오면서 〈능가경〉과 〈승만경〉 및 불사리를 바쳤다. 또 북인도 오장국의 비마라진제(毘摩羅眞諦 · 44세), 농가타(農加他 · 46세), 마두라국의 불타승가(佛陀僧伽 · 46세) 등이 황룡사에 머물면서 밀교 계통의 경전인 〈전단향화성광묘녀경(栴檀香火星光妙女經)〉을 번역하자 신라승 담화(曇和)가 그것을 한문으로 받아 적었다. 뒤이어 선덕여왕 12년(643)에는 당나라에 유학 갔던 자장(慈藏)이 돌아오면서 장경 일부(4백여 상자)를 가져왔다.

남북국시대의 남국인 통일신라 때에는 중국 전래 불전들에 기초해 불학을 연찬했다. 분황 원효(芬皇元曉; 617~676)의 〈금강삼매경론〉, 부석 의상(浮石義湘; 625~702)의 〈화엄일승법계도〉 등 〈한국불교전서〉 '신라시대편(3책)'에 수록된 저술들 대부분은 당시에 필사돼 읽히다가 8세기 이후 목판 인쇄술에 의해 판각돼 인간됐던 것들로 추정된다. 또 〈삼국유사〉 '탑상' 편 '전후소장사리' 조목의 기록처럼 통일신라 말에는 보요(普耀)선사가 오월국에서 두 차례나 대장경을 가져왔으며, 묵(默)화상이 후당으로부터 대장경을 가져왔다. 북국인 대발해(698~926) 황실 역시 8세기 초반에 불전이 전해지고 후반에 당나라 유학을 다녀온 정소(貞素) 등이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 등을 번역했다. 이처럼 고대 사국은 인도와 티베트 및 중앙아시아와 중국 등을 통해 들여온 불전을 한역하거나 한역된 불전을 수용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신행에 매진하고 교학을 연찬해 저술들을 유통시켰다. 고려에는 성종 10년(991)에 한언공(韓彦恭)이 송(宋)나라로부터 들여온 480질(帙) 5,047권의 개보판(開寶板) 한역 불전들이 널리 보급됐다. 이들 불전에 의해 신행(信行)과 연찬(研鑽)이 이루어졌고 성과물들은 목판에 의해 인쇄 출판돼 유통됐다.

2. 불전의 판각

중국의 제지술이 593년 고구려에 전래되면서 불교인들의 저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역 불전의 간행을 위해 진전된 목판 인쇄술은 7세기 경 중국에서 시작돼 740년경부터 동양과 서양으로 각각 전파됐다. 현존 기록상 목판 인쇄에 의한 가장 오랜 불전 인출은 신라 경덕왕 10년(751) 이전에 제작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너비 8㎝, 길이 5m)으로 추정된다. 현존 세계최고의 목판 두루마리 인쇄물인 이 경전은 한 줄이 8자로 돼 있으며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 제2층 탑신부의 사리함 속에서 발견됐다. 이 다라니경의 출간연대는 상한선을 700년대 초로, 하한선을 석가탑의 건립연대인 751년 경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는 이 경문 속에 당(唐)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 집권기(15년)에만 통용된 뒤 자취를 감춘 신제자(新制字) 4글자(注[證] · 澍[地] · 全[授] · 葊[初])가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글자 크기와 정밀도(精密度)에서 빼어난 경전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상으로도 종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백만탑다라니경(百萬塔陀羅尼經 · 770년 간행)〉보다 20여년 앞선 것이다. 또 중국 돈황 출토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 868년 간행)〉은 글자를 뒤집어 새긴 목판이어서 장시간 보존할 수 있으며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한 면에 모든 글자를 새기기 때문에 한 문헌밖에 찍어낼 수 없고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위의 두 인경보다 앞서 이루어졌고 지질(紙質)면이나 목판 인쇄에 의한 인경 형태면에서 한국 고인쇄문화(古印刷文化)의 높은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글자체를 한 자씩 새긴 다음 그것을 모아 판을 짜는 인쇄술은 고려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목판 인쇄술은 대장경 조성을 계기로 고려 전역으로 확산됐다.

초조본 〈고려대장경〉 조성은 고려 현종 2년(1011)에 대구 부인사(符仁寺)에 설치한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전담했다. 현종 3~4년(1012~1013)경에 거란이 쳐들어오자 조정에서는 진행해 오던 대장경 판각사업을 문명국으로서의 자존심과 우월감을 이웃나라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동시에 붓다의 힘[佛力]에 의지해 국민을 단결시키고 적병을 물리치기 위한 발원으로 이어가면서 대장경 조성은 급진전 됐다. 그렇게 현종 대에 시작된 사업은 덕종(德宗)대로 이어졌으며 문종(文宗)에 이르러 더욱 활발히 진행돼 선종(宣宗) 4년(1087)에 판각이 완료됐다. 대장경의 조성에 이어 의천(義天, 1055~1101)은 대장경에서 빠진 소초(疏鈔)류를 보완하기 위해 〈고려교장〉 편찬사업(1096)에 착수해 1,010부 4,740권의 목판을 판각했다. 그러나 이 〈고려교장〉은 초조본 〈고려대장경〉과 함께 유라시아를 통일하고 고려로 쳐들어온 몽골의 별동부대에 의해 대부분이 불타 버렸다.

사국시대 불교전적 강독 주체는
스님들과 거사 등 불교 지식인

이후 고려 조정은 붓다의 힘에 의지해 국민을 단결시키고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 강화 용장사지(龍藏寺址)에 대장도감을 설치(1236)하고 강화에서 재조본 〈고려대장경〉의 판각을 시작했다. 이어 남해 및 진주 등의 분사도감에서 경판 조성을 지원해 16년만인 1251년에 1,539부 6,805권의 대장경 정장(正藏)을 완판하고 부장(副藏)을 덧붙여 강화의 선원사지(禪源寺址)에 보존했다. 이들 판목의 판각 주체는 승려를 비롯한 당대의 지식인이었지만 정작 각수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었다. 그런데 이 경판은 왜구의 침탈을 피해 조선 초에 해인사(海印寺)로 옮겨졌으며 현재 1,749종 6,571권 154,296판이 장경각에 보존돼 있다. 여기에서 판수(板數)는 대체적으로 한 판의 양면에 새겨진 숫자를 가리키지만 더러는 한 판의 한 면에만 새겨진 판도 있다. 대장경 판목 총계가 81,137매(枚)의 양면인 162,274매가 되지 않고 154,296판이 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고려 후기 이후에는 이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판목에 의해 많은 불전이 인출 간행됐고 번역 유통됐다.

3. 강독의 주체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와 신라에 한역 불전뿐만 아니라 범어 불전들이 유통되면서 불교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졌다. 당시의 지식인들도 불교전적[佛典]에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들 불교전적은 주로 한자로 된 저술들이었다. 당시의 서민들은 한자를 사용했던 귀족들과 달리 주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던 표기법인 이두(吏讀), 온전한 한국어를 적기 위해 한자를 활용한 표기법인 향찰(鄕札), 그리고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 한자 옆에 점(點)과 선(線)을 새겨 넣어 발음이나 해석을 알려주는 양식으로 한문 해석을 돕기 위해 구절 사이에 한국어로 토를 다는 각필(角筆), 한문의 단어나 구절 사이에 붙이는 한국어 토씨를 표시할 때 사용됐던 문자 구결(口訣)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해왔다. 때문에 한자나 한자의 부수를 빌어 표기하는 이두와 향찰 및 각필과 구결 등은 당시 사람들의 언어생활을 엿볼 수 있는 주요한 자료가 된다.

고중세 이래 한자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 베트남에서도 사용해왔다. 때문에 고중세에 동아시아인들이 공유해온 한자(漢字)를 중국말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더욱이 중국은 문화혁명(1966~1976) 이후 문자개량을 통해 간체자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번체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한국과 일본 및 대만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자는 동아시아에서 널리 유통된 고대 한어(漢語)일 뿐이다. 고대 이래 우리 민족은 이두 · 향찰 · 각필 · 구결 등 한자 차용 표기법을 매개해 언어생활을 했다. 하지만 사국을 통일한 신라로부터 남북국 시대의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이두와 향찰 및 각필 구결 등의 한자 차용 표기법을 사용해 언어생활을 했다. 때문에 당시에는 번역(飜譯)이라는 의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오히려 우리에게 '문화의 옮김'으로서 '번역'이란 의식이 본격화된 것은 최행귀(崔行歸)가 한역한 균여의 향가를 혁련정(赫連挺)이 〈균여전〉에 수록하면서 본격화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국시대에 불교 전적의 강독의 주체는 대부분이 불교 지식인인 승려들과 재가 거사들이었다. 고구려의 승랑과 보덕과 의연, 백제의 겸익과 현광과 혜현, 가야의 장유, 신라의 원광과 안함과 자장 등의 저술은 전해지지 않지만 인용 저술이나 관련 사료들을 통해 그들은 한문으로 학술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불교전서〉 신라시대편에 실려 있는 전적들에 근거해 보면 통일신라의 불학자들은 당에서 활동한 원측과 신방을 필두로 해서 원효와 의상 및 경흥과 태현 등 수많은 불학자들 모두가 한문(漢文)으로

원측 · 원효 · 의상 · 무상은
신라문명 르네상스시대 열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그들은 중국과 인도에서 들어온 사장(四藏)들을 접하면서 불교적 세계관 위에서 불전들을 강독하고 저술했다. 당시 사람들은 한문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뜻과 음을 이두와 향찰과 각필과 구결 등을 원용해 불전을 이해했다.

반면 불교 지식인들은 정통 한문을 곧바로 활용해 강독과 저술을 했다. 때문에 불교 전적들은 대부분 정통 한문에 기초해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분황 원효의 〈금강삼매경론〉과 〈대승기신론소〉와 〈대승기신론별기〉와 〈이장의〉 등은 경전과 논서에 대한 즉자적 주석 내지 대자적 창작물이다. 일연이 원효를 '분황사의 진나(陳那 · 디그나가)보살의 후신'이라고 한 것은 그가 인도의 불교논리학자인 진나와 같은 탁월한 논리학자임을 거론한 것이다. 원효는 87종 180여권의 저술에서 화회(和會)의 매개항을 통해 일심(一心)의 철학을 구축했고 무애(無碍)의 실천을 구현했다. 사국을 통일한 통일신라는 불교 공인 100여년 만에 불교 전적을 온전히 소화해 자기화했다. 그 결과 원측(613~696)은 유식(唯識), 원효(617~686)는 기신(起信), 의상(義湘; 625~702)은 화엄(華嚴), 무상(無相; 684~762)은 선법(禪法)에 일가를 이루었다. 이들 네 사람은 동서아시아의 지평 위에서 통일신라문명의 르네상스시대를 열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정확도 효과성 제일

아래 각 활용서 및 CD프로그램에는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 및 해소방법을 정확하고 효과 크게 적시함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학습용) · 하(임상용)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기존사주초월)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간추린 육임 형이상법) 5만원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정가350만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12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통1권 / 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사/당면판단사완성 (각띠별 확정) 정가650만원
· 군자수첩 육임정수모음 · 저렴한 가격대 정가103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농 협 301-0071-8027-01/ 육임나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매월 첫주 시작 4회 완성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